

■ 이만의 환경부장관 특별 인터뷰

# “영산강 사업은 나의 소신...생태·환경파괴 없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초지일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도 “사업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일하고 있다”는 소신 발언과 함께 “그래도 지구는 돈다”며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지역 국회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마음속에 담아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애항심이 가득한 모습이 나타났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환경 파괴 논란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강보다 사업 진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깨끗한 수자원 확보가 절실하다. 멸종 위기의 수생식

수생식물·멸종위기 어류 등 별도 서식지에서 관리

광주·전남 미래 위해서는 깨끗한 수자원 확보 절실

물과 어류들은 별도 서식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예산 문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아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어서 적극 추진하는 차원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신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모든 결과에 대해 역사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우선 4~5급수 수준의 영산강 수질이 크게 맑아진다. 여기에 영산강을 따

라 전남만의 특성을 살린 수변 공간을 만든다면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낙동강과 한강 수변을 뛰어넘어야 한다. 선진 외국 사례를 보고 배워 영산강만의 특별한 수변 공간 등을 구상해야 한다.

-영산강에 설치되는 ‘보’가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보에서 확보한 수량을 영산강에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시킬 것이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를 통한 수자원 확보는 광주·전남에 꼭 필요하다. 현재의 수량으로는 농업용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는 산업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형 댐을 몇 개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대불공단의 기업 유치시 산업용수 문제가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친(親)이명박 정부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지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호남 인맥으로서 호남의 얼굴에 벽칠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내가 잘한다면 더욱 많은 호남 인맥들이 이명박 정부에 중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호남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지금 호남은 위기다. 인구나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다. 전남은 농업 인구가 많은 반면 타 지역은 산업 및 서비스 인력이 주류다. 한 마디로 인력의 질에서도 차이가 크다. 지역의 역량을 모아 보다 많은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깨어 있어야 한다.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두 배, 세 배 이상 일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동욱기자 tuj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테크노파크의 자기 사랑



김지을

경제부 기자

지난 7일 오전 11시께 A4 2장 분량의 해명 자료가 기자 메일로 들어왔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사실 확인자료’란 제목으로 보낸 것으로, 이날 아침 본보 8면에 보도된 ‘광주테크노파크 제 구실 못한다’는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테크노파크측은 “전국 15개 테크노파크에서 3등을 차지했다”고 부각시킨 뒤 본보가 전체 20개 평가 항목 가운데 다소 낮은 평가 결과를 보인 4개 항목만을 가지고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기사가 성과에 대한 홍보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을 부각한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그러시일까. 해명 자료는 고객만족도평가 항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기업과 유관기관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는데 많은 부문을 할애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15개 테크노파크의 경영실적을 평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정확한 경영 진단을 통해 성과는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입주 기업은 물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철세로 운영된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 것 아닌가.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기자가 자료 요청했을 때 비공개라며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본보가 입수해 기사화하자 똑같이 해명자료와 홍보성 보도자료를 냈다.

2008년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는 ‘경영진각부’와 ‘주요사업부’ 등을 몇 가지 세부 항목에 걸쳐 살펴봤다. 평가서는 광주테크노파크와 관련 ‘미흡하거나 아쉬운 측면이 있다(사업관리시스템)’, ‘우려된다(조직·인사·재무관리시스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다(종합 성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기업지원서비스사업)’,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유사업)’ 등으로 지적했다.

그런데도, 테크노파크는 이런 결과에는 눈 감고 전체 테크노파크 가운데 총점이 세번째로 높고 일부 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점만 강조했다. 좋지 않은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다. 이것도 모자라 이들이 지난 9일에는 ‘빛고를 산업경쟁력의 원동력 광주테크노파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다시 언론사에 보냈다.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나마 전국 15개 테크노파크 중 3번째로 총점은 높지만 최종등급은 B등급이고, 선발 테크노파크 6곳 중에서는 3번째라는 사실은 속 뻘다. 후발인 전남테크노파크는 A등급인데, 광주는 왜 B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해명성’ 보도자료에 틀린 공을 지역 산업기술포럼 경제 활성화에 기울었다면 평가결과가 이번 보다는 훨씬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dok2000@kwangju.co.kr

## 박광태 시장 “민자 통한 돛구장 건립” 재확인

###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박광태 광주시장이 돛구장 형태의 야구장 건립 추진을 재확인 했다.

박 시장은 15일 광주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진선거 의원(민주·북구1)의 야구장 건립 추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시의곽에 새로운 야구장을 건립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개방형 야구장은 전역 시비로 유지·관리해야 하지만 돛구장은

민자유치로 건립·운영하기 때문에 시 부담이 없다”며 돛구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44년 된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노후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한국야구위원회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도시의곽에 부지를 마련해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개방형 야구장의 경우 사업비 1천억원이 소요되지만 전역 시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돛구장은 4천억원의 사업비가 소

요되며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후 기부채납 된다. 운영비는 콘서트·축제 등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을 개최해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입장료도 현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돛구장과 개방형 야구장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검토해 조만간 좋은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공동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돛구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시도 이를 공식화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미 공군 곡예비행팀 선더버드

미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선더버드가 지난 14일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선더버드는 이날 언론을 위한 시범비행을 선보였는데 앞으로 치토세, 미사와 등지에서 일본 주민을 상대로 곡예비행을 할 예정이다. /연합스

미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선더버드가 지난 14일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선더버드는 이날 언론을 위한 시범비행을 선보였는데 앞으로 치토세, 미사와 등지에서 일본 주민을 상대로 곡예비행을 할 예정이다. /연합스

### 강진군청 공무원 등 2명

### ‘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언론에 보도된 현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복사해 배포한 군청 간부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진군청 간부 S씨와 2명이 지난달 23일 모 지역신문에 실린 ‘○군수 압도적 1위 차지’라는 제목의 ‘차기 강진군수 후보 적합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기사 내용을 군청 발간실에서 1천500부를 복사해 관내 이장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다.

군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52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전남 서남해안에 5GW 풍력발전 단지 조성

전남 서남해안에 연 390만 가구의 전력 사용이 가능한 5GW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이 풍력발전 단지는 영광원전 5·6호기의 발전량과 비슷한 규모로, 연간 700만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26개 기업과 금융회사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국에서 풍황(風況)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진 전남 서남해안에는 앞으로 20여년간 약 15조5천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풍력산업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포스코 건설, 한국수력원자력발전, 대우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7개 기업은 서남해안 도서 및 해양지역에 5GW 이상의 육상·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대우조선해양, STX 중공업, 디엠에스, 씨에스윈드는 설비 분야에 투자한다. /최권일기자 cki@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stylized tree illustration and text about credit accumulation and exam preparation. The text includes '국립학점' and '국립학점' repeated multiple times.